

|| 한수원, 중국에 원전시공기술 수출계약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중재)은 중국에 원전 시공 기술을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6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핵공업 제23건설공사와 링아오 2단계 1·2호기의 시공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이 305만불 규모인 이번 중국핵공업 제23건설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오는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국 링아오 2단계 원전의 1차계통 기전공사 시공에 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게 됐다. 링아오 2단계 원전은 중국 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10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로 2005년 착공해 1호기는 2010년 12월, 2호기는 2011년 8월에 각각 준공예정이며, 중국에선 10,11번째 원전이다.

중국핵공업 제23건설공사는 중국 내 원전 1차계통 시공 전문회사로서 현재 중국광둥핵전집단 공사가 발주한 링아오 2단계 1·2호기의 1차계통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서명식에 참석한 판첸시 중국핵공업 제 23건설공사 총경리는 “그동안 프랑스 아레바(Areva)와 함께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수원과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한수원의 우수한 원전기술 능력과 그동안 한수원이 중국원전시장에서 보여준 성실하고 뛰어난 사업 수행 실적에 기인하였다”고 언급한 뒤 양사 간 긴밀한 협력중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3일, 우리 회사와 한전은 중국광둥핵전지반공사와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과 중국의 순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이날 중국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청사에서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 중 양국간 실질적인 원전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3사가 더욱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중국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약 4,000만kW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대의 원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우리 회사는 이번 계약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그동안 축적된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원전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가동중 원전 운영, 정비 시장도 적극 개척하는 등 중국 원전 사업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중부발전 - 신한은행 '맞손' 신규사업개발 위해 ... 10년내 매출액 20% 달성 목표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이 신사업 개발을 위해 신한은행(행장 이상훈)과 손을 잡았다.

중부발전은 7월 18일 신한은행과 서울 삼성동 아셈홀에서 신사업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의 기술적 인프라와 신한은행의 재무인프라를 결합, 중부발전의 핵심사업인 '신사업 1020' 사업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사업 1020'은 10년 내에 신사업 분야에서 매출액의 20%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중부발전의 신사업개발에 대한 공동투자 및 재원조달 자문 ▲ 신사업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 신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협력 및 상호교류 등이다.

중부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발전과 신한은행은 신사업개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중부발전은 한전과 공동으로 현재 레바논 복합화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사업, 중국 구리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인 강원풍력사업과 양구군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 사업도 추진하는 등 국내·외 신규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발전, 태안 8호기 수압시험 성공

보일러 및 증기배관의 내구성과 용접부위 건전성 확인

한국서부발전(사장 김종신) 태안발전본부는 7월 12일 태안화력 8호기 수압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날 수압시험은 설계압력의 1.5배인 초초고압으로 가압하여 보일러 및 증기배관의 내구성과 용접부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이날이 수압시험에 앞서 7월 7일부터 9일까지 Air Leak Test 및 예비 수압 시험을 시행한 바 있으며, 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입회하에 7월 12일 오전 본시험에 착수했다.

이날 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2시간여 동안 검사기관의 세밀한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어느 한곳에서도 Leak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써, 8호기 수압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날 수압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8호기는 후속공정인 최초점화 등 종합시운전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중인 태안 7,8호기는 2007년 6월(7호기)과 2008년 3월(8호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발전, 정부혁신평가 5단계 진입

-작년 4단계에서 1단계 상승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은 정부의 2005년도 혁신평가결과 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5단계로 평가되어 평가 대상 210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 그룹으로 인정받았다.

남동발전은 22개의 평가항목 가운데 17개 항목이 최고등급인 S를 받았으며, 특히 CEO의 리더십과 혁신추진능력, 혁신목표 및 전략, 구성원의 혁신역량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5단계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활동을 통해 내년도에는 6단계로 인증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힘든 여건가운데서도 “Global Power Leader 2010”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3S BEST”라는 혁신의 기치 아래, “KOSEP Way”를 묵묵히 실천해 온 우리 모든 직원들의 땀의 결실이라 믿으며, 평가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현장 실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부처 자율선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혁신 비전과 전략, 리더십, 혁신성과 등 5개 영역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관의 혁신수준을 평가하여 작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다. 혁신의 단계를 ‘혁신에 대한 필요성조차 확산되지 않은 상태’인 1단계부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상태’인 6단계까지로 구분한 이 평가에서 최고단계인 6단계는 한전과 도로공사 2개사만이 차지하였고, 우리회사를 포함한 26개 기관이 5단계로 평가받은 것이다.

LS산전, 수해지역 긴급 전력설비 서비스단 가동

LS산전(대표 : 김정만 www.lsis.biz)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9일 서비스팀, 영업팀으로 구성된 ‘수해지역 긴급 전력설비 서비스단’을 발대,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정만 사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기간’으로 정한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자”라고 말했다.

발대식 참석 후 김정만 사장은 서비스 요원들과 함께 저지대의 침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양 빗물 펌프장에 들러 LS산전이 납품한 차단기와 인버터 제품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였다.

LS산전의 긴급 전력설비 서비스단은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기간’ 동안 서울, 경기, 강원, 대구, 부산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순회하며 전력설비 및 자동화기기 제품에 대해 무상점검은 물론 일부 무상 부품교환을 할 예정이다.

LS산전 안일영 서비스팀장은 “전력설비가 침수되면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며 “LS산전은 전국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빠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60여 명의 직원들이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 요원과 사후서비스(After Service) 요원으로 전국에서 고객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II 포스코파워(주) 상공대상(사회복지부분) 수상

포스코파워(주) 인천발전소(소장 이명철)는 지난 7월 5일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 김정치)로부터 상공대상(사회복지부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공대상’은 기업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포스코파워(주) 인천발전소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자사의 기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특히 단순한 현금 기부가 아닌 노력봉사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회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것이 높게 평가되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빈곤, 결손가정과 공부방(어깨동무 신나는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가정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서구 노인복지회관), 인천시자원봉사 센터와의 연계활동과 비상 재난시 구조활동(S.O.S.봉사단) 등의 구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에 따른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만평 규모 부지에 다목적운동장,농구장,배구장,족구장,게이트볼장,어린이놀이터,체력단력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포스코파워(주)는 전 임직원이 봉사활동 기금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직원 모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추가 출연하여 공동으로 ‘밝은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기업 의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